

보험업계 화두, 판매 → AI운영책임·고령사회 돌봄 전환

AI기본법·돌봄지원법 곧 시행

전사 AI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등
올해 AI 도입보다 ‘통제’ 핵심과제
치매정책 돌봄→재산권보호 이동

올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화두는 상품 판매에서 ‘규제 하 운영책임’과 ‘돌봄·자산보호 서비스’로 옮겨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I 활용이 확산하는 동시에 치매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 정책이 본격화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전사 거버넌스와 서비스 역량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AI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쓰기 위한 공통 규율’에 초점을 둔 법이다. 고영향(고위험) AI, 투명성, 안전성 같은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위험관리와 인간에 의한 감독 등 준수 의무의 틀을 마련해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하위 법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 32곳은 AI를 업무



Chat GPT가 생성한 올해 보험업계 이슈와 화두 이미지.

에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다. 보험업권은 이미 AI 도입 단계에 들어섰지만, 2026년부터는 도입보다 ‘통제’가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안)이 공개되면 AI 안전성 확보 절차,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 투명성 고시·표시 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 보험사로서 AI를 도입했느냐보다, 어떤 데이터·모델을 썼

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가능한 체계, 민원·분쟁 시 책임소재를 정리하는 내부통제, 개인정보·보안 및 로그 관리까지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보험연구원은 AI 관련 과제로 ▲영업지원 분야에서 AI를 ‘능동형 툴’로 확대 ▲전사 AI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AI 리스크를 상품·서비스로 사업화

등을 꼽았다. 단순한 상담 스크립트 생성 수준을 넘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업무를 연결·처리하는 형태로 고도화되는 만큼 광고·설명 책임, 취약계층 보호, 개인정보·보안, 사람의 감독 등 통제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보험소비 경험 및 생산성 제고 효과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AI 적용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뢰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AI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대응은 ‘보험의 역할’ 자체를 넓히는 이슈로 제시됐다.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 시행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가 본격 작동하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법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을 지속하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서

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지자체가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치매 정책은 돌봄에서 ‘재산권 보호’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인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154조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2026년 19억원을 투입해 치매 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보험사 역시 보장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통합돌봄 인프라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 신탁·자산보호 제공자 등 ‘노후 리스크 매니저’로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보장 역할은 재가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금융-돌봄 연계형 재정 인프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돌봄 인프라의 민간 공급자이자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금융, 올해 경영전략 ‘전환과 확장’ 제시

AI활용 디지털 시무식

양종희 회장 “강점·기반 지키고
새로운 환경 맞춰 사업방식 전환”

KB금융그룹이 올해 경영전략으로 ‘전환과 확장’을 제시했다. 혁신을 강조하며 시무식도 대면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열렸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지난 2일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무식을 통해 “올해 그룹의 경영전략과 경영계획 방향은 바로 전환과 확장”이라며 “KB의 강점과 기반은 확실히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고객과 시장까지 우리의 시야와 사업의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무식은 별도의 대면 행사 대신 양 회장의 신년 메시지를 AI 영상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 신년사를 통해 진행됐다. 양 회장은 AI 영상으로 재현됐고, 임직원들은 각자의 근무여건에 맞춰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했다.

양 회장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



AI 영상으로 재현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비대면 디지털 시무식을 하고 있다. /KB금융

다임의 변화를 전략적인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역량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자문과 상담 중심의 업무를 통해 종합적인 자산·부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 효율적 IB 비즈니스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누구나 KB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본연의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고객과 시장의 ‘확장’을 통해서만 유스(Youth), 시니어,

중소법인, 고자산가 등 그동안 놓쳤던 전략 고객군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고,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 AI 비즈니스 시장에서 고객과 사업 기회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리테일을 넘어 금융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내놔다.

이한주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리테일 금융의 강자’라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KB의 금융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고객과 사회 트렌드 변화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KB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다른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은 행 경영의 지향점 확장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력의 원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안정적”

이창용 한은 총재, 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 경제성장률 1.8%로 전망된다”며 “환율·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변수가 통화정책 운용의 핵심 제약 요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나해 계엄사태 직후 경제 시스템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 둔화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취약부문 지원을 이어갔으나, 하반기 들어 성장과 금융안정 두 목표 사이 긴장이 고조되며 동결로 선회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에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환율 변동성 심화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물가에 대해서는 기상여건 악화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최근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올랐지만,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면 연간 2.1% 수준에서 주요국보다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주형 기자

전국 5곳서 총 756가구 올해 첫 집들이

분양 캘린더

1월 첫째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756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지난해 연말 분양 물량이 집중되면서 새해 첫 주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다.

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대라수 어썸’(297가구),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전주 에코시티 더 클래스’(48가구), 전남 해남군 ‘해남 남외리 정하 에코프라임’(305가구)의 청약이 이뤄진다. 경기 양주시 ‘양주역 중흥S-클래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광명시 ‘광명 퍼스트 스위트’ 오피스텔도 청약에 나선다.

인천 중구 중산동에 들어서는 ‘영종하늘도시 대라수 어썸’은 지하 1층~지상 최고 40층, 3개 동, 총 297가구 규모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달빛초(개교 예정)를 비롯해 중산중, 중산고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국제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다.

모텔하우스 오픈은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 단 한 곳에서 예정돼 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4개 동, 총 45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1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주요 상업시설이 가깝고,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을 이용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0곳,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부영태평빌딩에 9개국 대사관·공관 입주

세르비아·파라과이·볼리비아 등
“보안기준 충족… 서울의 외교거점”

부영그룹의 부영태평빌딩에 9개국의 대사관과 외교공관이 입주해 서울 도심 내 외교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서울 시청 일대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는 ▲유럽의 세르비아 ▲남미의 파라과이, 볼리

비아, 페루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아시아의 캄보디아 대사관 등과 스페인·페루 대사관 소속 무관실, 스페인과 학기술개발센터 등 총 9개국 대사관 및 외교 공관 기능이 입주해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대륙의 외교 공관이 한 건물에 집결한 사례는 국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부영태평빌딩

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사관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외교 특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며, 각국 외교관 및 귀빈들을 위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외교 클러스터로서의 상징성은 건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